觀光資源分布性向에 의한 濟州島의 地域別觀光性*

宋 成 大

目 次

Ⅰ. 序 論
Ⅱ. 觀光資源分布의 地理的 基盤
Ⅲ. 地域別 觀光性
Ⅳ. 結 論

Ⅰ. 序 論

1. 研究目的

오늘날 진정한 意味로의 觀光 즉 大衆觀光의 효시가 되는 國家는 産業革命을 가장 먼저 經驗한 英國이다.[1] 이것은 觀光의 大衆化가 社會經濟的 變化에 隨伴되는 하나의 動態的인 社會現象의 하나임을 示唆해 주는 것으로 Dower, M은 觀光의 大衆化는 産業化가 가져다준 하나의 거센 물결이며 이 물결은 黑鄕都市의 急增, 大量輸送體系의 形成, 都市의 스프로울現象 다음에 나타나는 第四의 물결이라고 단정한다.

黑鄕都市의 急增이나 都市의 스프로울現象은 産業化 이전에 비하여 地表上의 대다수 人口가 分散居住에서 都市라는 點的 空間에 集中居住함을 뜻함이며, 大量輸送體系의 形成이란 人間의 移動性이 增大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都市革命과 交通革命의 到來를 뜻한다. 따라서 大衆觀光의 물결은 결국 이 兩者를 바탕으로 어느 特定한 空間만이 아니고 놀라운 속도로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음이 分明하다.

觀光流動은 여러 形態의 空間間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觀光地理學的 側面에서 區分한다면 觀光客送出地(tourist generating region)와 觀光客收容地(tourist receiving region)로 2區分될 수 있는데 垂直的 觀光移動에 있어서의 前者는 都市라는 人間密集 空間이

* 이 論文은 1983年度 文教部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1) Edmund W, Gilbert, Land and Leisure, Cranbury,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Inc, 1971, p.15.

되며 後者는 海邊(Seaside), 田園(country), 山岳(mountains)등의 人口寡少 혹은 人間非居住地인 田園空間(Countryside)에 해당한다.

그러나 田園(Countryside)이라해서 모두 觀光活動의 場이되는 것은 아니고 觀光資源의 質量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어야하며 이는 時間經過에따라서 動態的으로 把握되어져야하는 屬性을 지닌다.[2]

우리나라는 1960年代 이래의 經濟發展으로 國民의 可處分所得과 時間이 增大되었고 따라서 各 地域에 潛在되었던 多種多樣한 觀光資源은 顯在化되기 시작하였으며[3] 특히 이경우 國土의 邊境地帶부터 영향을 받기 始作하였는바 國土最南端의 濟州島는 그중 가장 빨리 觀光地域形成이 시작된 地域의 하나가 되었다.

濟州島는 觀光機能만아니라 그 位置的 利點때문에 1950年代부터 끊임없이 自由貿易地帶로 開發한다는 中央政府의 意志가 표명되곤하였으며 근년에 이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轉換期를 맞게될 本島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장래 觀光을 核으로 하는 開發이 본격화될 경우에 파생되는 불합리한 觀光土地利用을 막고 合理的인 開發을 어떻게 行할것인가에 있다하겠다.

따라서 濟州島內에 分布하는 觀光資源의 質·量的 特性과 分布性向 그리고 이에 의한 觀光空間構造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事前에 解明할 必要가 있다.

이러한 硏究는 學的으로는 觀光地域性에 對한 究明에도 意義가 있으며 아울러 開發過程에 나타나는 試行錯誤, 不必要한 國家財政의 낭비, 自然破壞등의 要因을 극소화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觀光運營에도 基本的 資料로서 利用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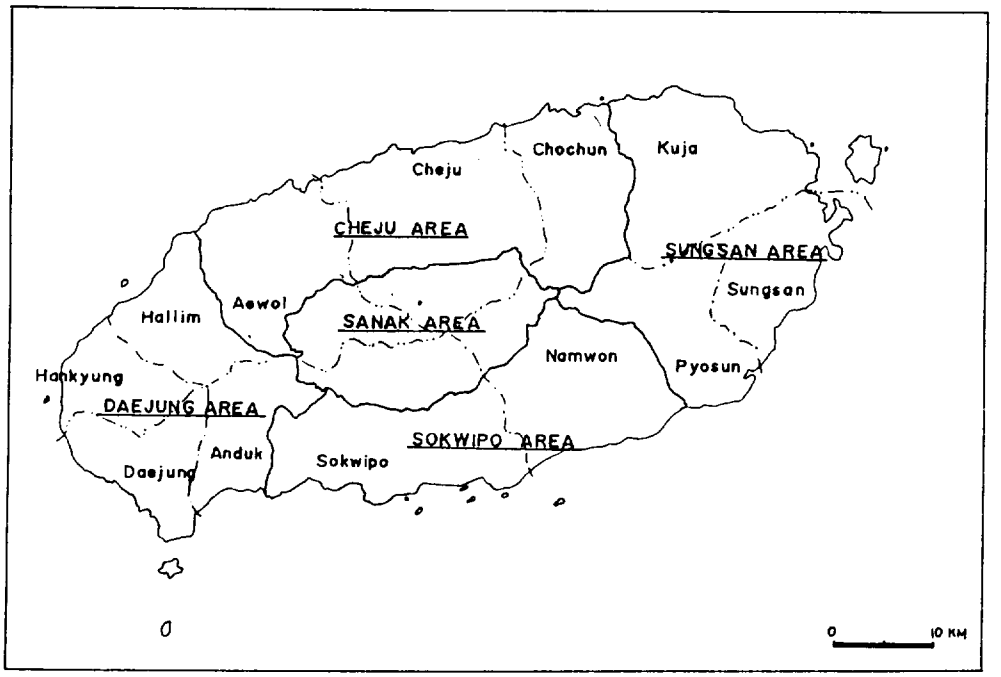
2. 硏究方法

本稿의 硏究對象地域은 濟州道行政區域上의 2市6邑5面중에 入道觀光客의 活動이 微弱한 楸子面(6.1㎢)을 除外한 全地域(1,814㎢)이 되고 있으며 觀光空間構造와 觀光地機能의 解明을 위한 大地域區分은 濟州觀光綜合開發計劃[4]에 의거하였는데 漢拏山의 釜岳을 중심으로하여 山北은 濟州圈, 山南은 西歸浦圈, 山東은 城山圈, 山西는 大靜圈으로 區分되며 이들 4個圈域의 領域중에서도 海拔 600m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總合하여 山岳圈으로 獨立하여 區分하였다.
(圖·1參照)

2) World Tourism Organization, Social and Cultural Impact of Tourist Movement, Madrid, 1979, p.48.

3) 國際觀光公社, 韓國觀光振興長期綜合計劃, 서울, 國際觀光公社, 1979, pp.85~97.

4) 靑瓦台觀光開發計劃團, 濟州觀光綜合開發計劃, 서울, 靑瓦台觀光開發計劃團, 1973.



圖·1 濟州道의 觀光圈

한편 이들 5個觀光圈域에 속하는 각 觀光地區의 設定은 觀光資源의 連接度와 行政區域 그리고 해발고도등에 의해 行하였다.

硏究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基本指標로서의 觀光資源選定은 非定形의 間接的이면서 環境資源인 경우는 그 중요성에서 强調될 수 있기는 하지만 資料處理上의 어려움때문에 捨象되어 단지 定形의 直接的이고 代替不能한 點狀의 資源만을 채택하였다.[5]

그 결과 自然的 資源으로는 山峰, 河谷·瀑布, 奇岩·絶壁, 洞窟, 砂濱, 섬, 動植物 등 7個部門이 되었으며, 文化的 資源은 遺物, 遺跡, 史跡등이 있으나 本島內에 分布한 文化的 資源이 극히 빈약하므로 일괄하여 文化[illegible]로 묶었다.

資料로서의 資源抽出은 韓國觀光資源總攬,[6] 資源調査報告書,[7] 濟州道志[8] 등의 文獻과 野外踏査에 의해 調査된 결과에 의하였다.

本島의 觀光資源分布性向을 把握하기 위해서는 部門別資源分布圖를 作成한후에 百分比와 變

5) 宋成大, "우리나라觀光資源의 分布 性向과 地域別構造", 濟州大學校論文集 第14輯, 1982. p.333.
6) 國際觀光公社, 韓國觀光資源總攬, 서울, 國際觀光公社, 1979.
7) 濟州道, 資源調査報告書, 濟州, 濟州道, 1974.
8) 濟州道, 濟州道志(上·下), 濟州, 濟州道, 1982.

動系數(CV)에 의해 행하고 그 地理的 基盤은 各種文獻에 의하여 說明하였다.

한편 觀光地區의 觀光性은 偏倚係數(DQ), 立地係數(LQ), 資源構成比등에 의해 추구하였는바[9] 특히 各觀光地區의 觀光性을 단순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位置에 의해서는 海岸(Seaside) 內陸(Inland), 山岳(mountain)地區로, 觀光資源(觀光客體)에 의해서는 自然地區(natural resources), 文化地區(Cultural resources)로, 觀光活動(觀光主體)에 의해서는 遊覽地區(Sight seeing), 慰樂地區(recreation)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遊覽地區와 慰樂地區의 區分基準은 資源比와 立地係數에 의하였는데, 즉 砂濱, 山峰(海拔 600 m 이상)이 地區內에서 最多構成比를 이루고 立地係數 1.0 이상의 最高値를 보이면 慰樂地區로, 이 條件에 해당되지 않으면 遊覽地區로 區分하였다.[10]

9) W. Isard, Methods of Regional Analysis, An Introduction to Regional Science, M.I. T Press, Campridge, 1969, pp.123~126.
金琮採, 統計學, 서울, 中央適性研究所, 1976, pp.57.

10) 金炳文, 觀光地理學, 서울, 螢雪出版社, 1978, pp.11~18.
金相勳, 觀光事業概論, 서울, 螢雪出版社, 1977, pp.41~44.
H. Robinson, A Geography of Tourism, London, Mcdonald and Evans, 1976, pp.29~52.
Alan Jubenville, Outdoor Recreation planning, Toronto, W.B. Saunders Company; 1976, pp.3~12.
Edmund W. Gilbert, Land and Leisure, pp.15~42.
日本交通公社, 觀光の本質とその將來像, 東京, 日本交通公社, 1969, pp.11~17.
日本交通公社, 觀光辭典, 東京, 日本交通公社, 1973, pp.44~47.
上記의 資料에 의해 觀光行動形態를 「보는觀光(flow and see)」으로서 「遊覽型觀光(Sightseeing 혹은 tourism)」과 「즐기는 觀光(resort and do)」으로서의 「慰樂型觀光(do-touism 혹은 recreation)」으로 2分하였고 그 區分基準은 다음 表에 의한다. 따라서 觀光地의 觀光性은 이에 의해 導出을 試圖하였다.

觀光形態의 2元的 分類

區分指標 / 觀光形態	觀光動機	觀光機構	觀光對象	觀光對象의代替性	觀光欲求充足方法	觀光時間 및 經驗頻度	觀光移動 및 活動空間	其他
遊覽型	知·情·意	感覺器官	小景觀(文化財) 大景觀(聚落, 地形, 氣候, 産業)	不能	間接的	一時的(單回性)	點·線型	
慰樂型	心身의 保養·鍛鍊	運動器官	溫泉場, 野營場 運動場, 娛樂場 괴서 및 괴한地	可能*	直接的	持續的(週期性)	面型	

*관광환경은 代替不能

Ⅱ. 觀光資源分布의 地理的 基盤

1. 自然的 觀光資源

① 山峰

山峰은 一般的으로 個體的資源으로 觀光性을 지니나 火山地帶인 本島에서는 그보다는 環境的 資源으로서도 그 意味가 중요시된다. 즉 本島自體가 漢拏山이라는 하나의 火山體에 불과하며 그 위에 수많은 大小의 火山의 散在하여 他地域에서 볼 수 없는 特殊景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表·1 資源의 圈域別構成比 및 變動係數

資源別 \ 圈域別	濟州圈	西歸浦圈	城山圈	大靜圈	山岳圈	C V
山　　峰(100)	5.6	8.3	33.3	13.9	38.9	46.8
河谷·瀑布(100)	22.2	25.9	3.7	3.7	44.4	82.4
奇岩·絶壁(100)	9.5	19.0	9.5	19.0	42.9	61.0
洞　　窟(100)	7.7	15.4	23.1	53.8	-	93.1
砂　　濱(100)	28.0	20.0	24.0	28.0	-	52.0
섬　(島)(100)	7.1	35.7	21.4	35.7	-	72.5
動 植 物(100)	38.1	23.8	9.5	14.3	14.3	50.8
文 化 物(100)	56.6	8.4	15.7	12.0	7.2	92.7
全 資 源(100)	31.4	16.5	16.9	17.2	18.0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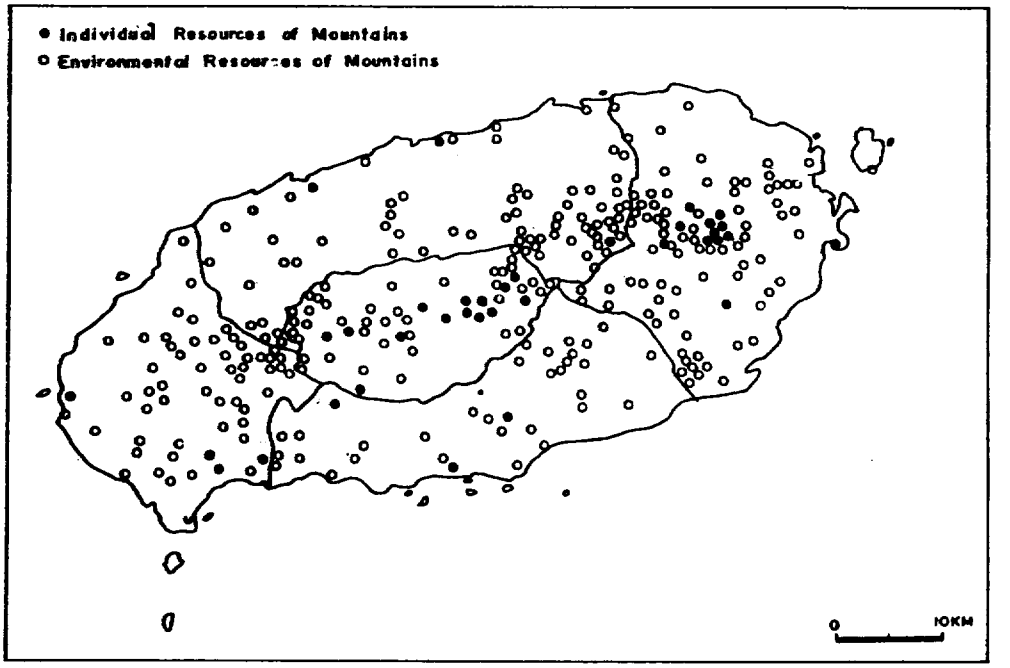
分布比 ; %, 變動係數 ; S/X%(S, 標準偏差, X, 平均)

山峰의 分布를 보면 變動係數가 46.8로서 전부문의 資源中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이資源은 가장 均等한 分布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圈域別로 보아서는 山岳圈에 전체의 38.9%가 集中되어 首位가 되며 다음에 城山圈(33.3%), 大靜圈(13.9%), 西歸浦圈(8.3%), 濟州圈(5.6%)으로 되어있다.(表·1參照). 이로미루어 보아 山峰의 分布는 東西型(圖·2參照)이 되고 있는데, 山岳圈에 山峰資源이 集中된 것은 이圈域의 山峰이 新生代 第3紀末에 噴出한 粘性이 큰 粗面岩質 安山岩으로 이루어져[11] 侵蝕이 進展 變化있는 景觀을 形成한 위에 海拔高度가 높음으로 因해 原始的 植生景觀과 大小의 噴火口 및 火山湖가 결합되었기

11) 金相昊, "濟州島의 自然地理", 地理學 : 第1號, 大韓地理學會, 1963, p.10.

때문이다.

山岳圈의 山峰들이 다분히 環境的 資源으로의 機能을 갖는데 반해 海岸 4 個圈의 山峰들은 個體的 資源으로서의 價値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 濟州圈과 西歸浦圈의 山峰은—西歸浦圈의 三梅峰 (165m) 은 二重火山으로 特殊火山景觀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都市民의 慰樂空間으로 利用率이 높은데 지나지 않으나 山東部와 山西部의 個體的 資源으로서의 山峰은 탁월한 觀光性을 지니고 있다.



圖·2 山峰의 分布

城山圈의 日出峰과 산굼부리噴火口는 本圈域의 代表的인 觀光資源으로 日出峰은 水中堆積의 火山砂岩이 水中火山爆發에 의해 形成되었기 때문에 山峰의 景觀美를 더하였고 爆發後에 이山峰은 점차 隆起하면서 海蝕과 風蝕을 받아 톱날같은 外輪山을 만들었는데, 爆發式噴火로 因해 火口의 지름이 400 m나 되어 山높이에 비해 2倍나 되는 전형적인 Homate 型 火山이 되고 있다.[12] 다음에 산굼부리噴火口는 독특한 火山形態를 갖는 山峰으로 噴火口의 높이가 10 m, 火口直徑이

12) 權藤在, 地形學, 서울, 法文社, 1980, pp.386～369.

500 m로 火口가 火山體의 높이에 비해 무려 50倍나 되는 規模를 갖고 있으며 또한 火口의 깊이가 130 m로 周邊平地보다도 120 m나 낮은 maar 型의 火山型을 보인다.[13]

이 산굼부리噴火口를 中心으로하는 주변일대는 以外의 個體的 資源化가 可能한 다수의 山峰의 최대집중지대이기도 하다.

한편 大靜圈에는 山房山, 松岳山, 簞山, 軍山, 月羅峰등이 있으나 代表的인 山峰은 山房山(395 m)으로 주변의 山峰과 같이 이 山峰은 粘性이 큰 粗面岩質安山岩으로 이루어졌는데 乾燥氣候下의 패디플레인(pediplain)에서 볼 수 있는 奇形의 島狀丘陵(inselberg)과 같은 景觀을 形成한 것은 마그마가 이미 地殼에서 冷却固結된 후에 下部의 2次的 壓力에 의해 돌출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火山體이 急崖를 이루는 Tholoide 型火山을 이루게 된 것이다.[14]山房山 역시 일단 海蝕을 받은 후 그 地盤이 隆起했기 때문에 隆起以前의 化石地形이랄 수 있는 海蝕洞과 自然橋가 남아 觀光性을 더욱 높혀주고 있다. 山房山 南쪽의 松岳山은 높이가 81 m로아주 低起伏의 火山이지만 보기드문 三重火山을 이루며, 그 西쪽의 簞山은 成層火山의 단면을 보여준다.[15] 그리고 觀光資源化는 되지 않고 있으나 加波島와 馬羅島는 그 섬 자체가 Pedionite 型火山을 이룬다.

이로써 本島內에 分布하는 觀光資源으로서의 山峰은 K.Schneider의 火山形態分類에 해당하는 各種의 形態[16]가 모두 包含되어 이들이 山岳觀光機能을 代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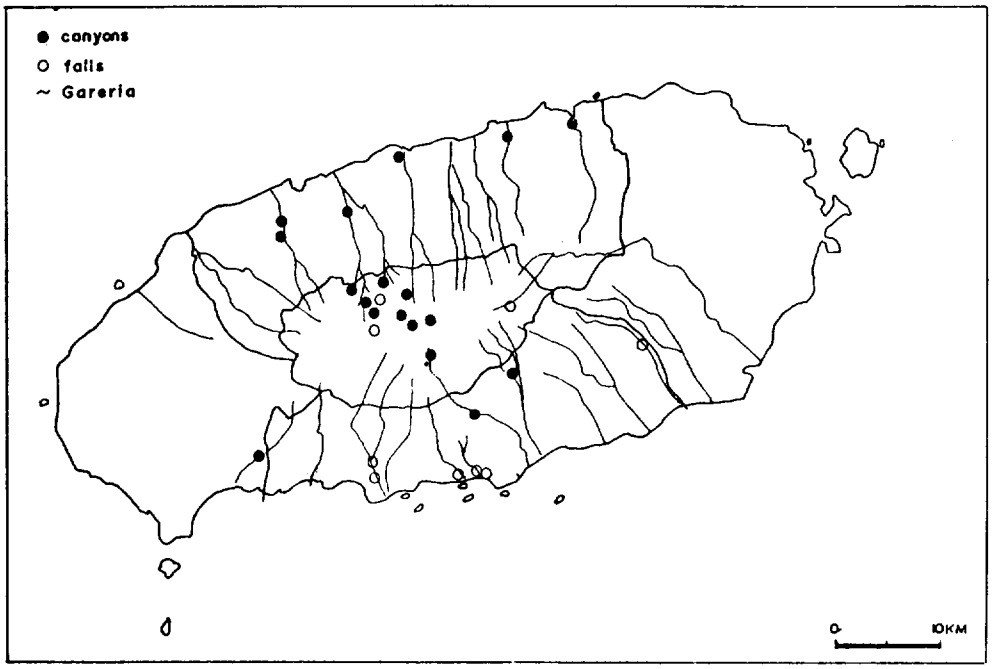
② 河谷·瀑布

本島의 河川은 대부분 乾川(Gareria)[17]으로 降雨時에만 水流를 볼 수 있어 水邊觀光地 形成에 불리하나 곳곳에 수려한 景觀을 갖는 乾谷과 河口 그리고 河川上流部의 瀑布, 여울등이 걸려 觀光性을 높이고 있다.

河谷·瀑布의 變動係數는 82.2로 매우 偏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들의 分布가 河系網의 發達과 關係를 密接하게 갖기 때문으로서 本島의 大分水嶺이 東西로 달려 이들 河系網은 자연히 漢拏山의 南北斜面을 따라 發達하여 圖·3에서 보는바와 같이 河谷·瀑布는 濟州圈, 山岳圈, 西歸浦圈에 集中하고 있고 그外의 圈域은 극히 미약한 分布를 보여준다.

山岳圈에 全 河谷·瀑布資源의 44.4%가 있는데 이 圈域은 本島의 모든 河川의 발원지로서 頭部侵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地帶이기는 하나 河谷·瀑布資源形成의 地理的 基盤은 모든 河川이 거의 그러하듯이 火山裂谷, 熔岩터널 그리고 地下水路의 天井등의 崩壞[18]로 因한 것이며

13) 李文遠外, 濟州島는 어떻게 만들어진 섬일까. 春光, 1983, p.80.
14) 元鍾寬, "濟州島의 形成過程과 大山活動에 관한 硏究", 理學論集 第1輯, 建國大應用科學硏究所, 1975, p.12.
15) 李智皓, 李泳澤, 國土와 地圖, 서울, 寶晉齋, 1972, p.28.
16) 鄭昌熙, 新地質學槪論, 서울, 博英社, 1979, pp.45~46.
17) 李智皓, 李泳澤, 國土와 地圖, p.27.
18) 金相昊, 濟州島의 自然地理, p.12.



圖·3 河谷·瀑布 資源과 河川의 分布

漢川上流의 개미溪谷, 탐라溪谷 그리고 外都川上流의 어리목溪谷, 川尾川上流의 城板岳溪谷, 新禮川上流의 水岳溪谷등은 이들 形成因子에 의한 것으로 깊이 수백미터를 이루는 V字내지 U字形의 溪谷이되며 이위에 溪流(rapids)가 있어 전형적인 幼年期谷을 보여준다. 이외에 瀑布로 規模性은 없으나 觀光 및 水壓治療機能을 갖는 都近川上流의 天女瀑布, 川尾川上流의 城板岳瀑布가 있다.

山岳圈다음으로 河谷·瀑布資源이 多數 分布하는 圈域은 西歸浦圈으로 전체의 29.9%가 分布한다. 특히 西歸浦圈에는 그 어느圈보다도 瀑布가 많아 9個中에 6個가 圈內에 있는데 中文川下流의 天帝淵, 마금골폭포, 솟밭川下流의 天池淵과 애이리川下流의 正房瀑布와 그에 인접한小正房瀑布, 川尾川中流의 川尾川瀑布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山北의 濟州圈에는 瀑布는 전무하고 外都川中流의 무수내谷과 그 下流의 外都月臺, 漢川中流의 房仙門谷과 下流의 龍淵등이 있어 河谷이 절대 우세한 分布를 보인다.

이와같이 山南의 西歸浦圈이 河谷, 瀑布인 경우에 우세한 分布를 보이는 것은 山北의 濟州圈을 흐르는 河川은 河口의 폭이 20～30 m로 넓고 그 깊이도 3～4 m에 불과한데 반해 西歸浦圈을 貫流하는 河川들은 河谷의 깊이가 40～50 m에 이를 정도의 深谷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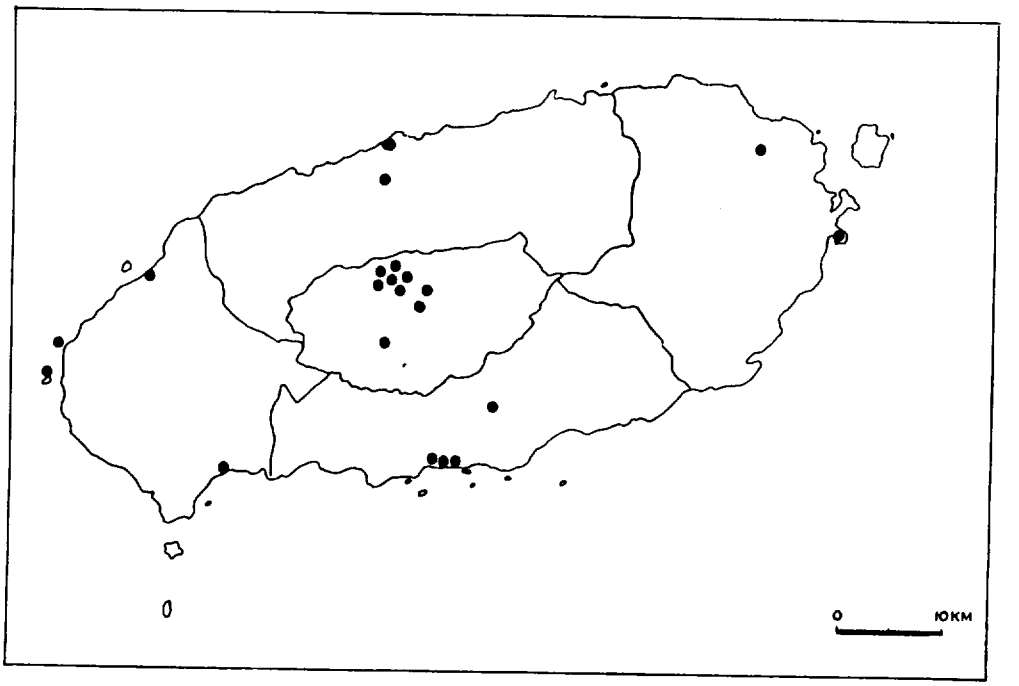
山北의 河川들은 侵蝕에 불리한 玄武岩地帶를 흐르나 山南의 河川들은 비교적 急傾斜의 安山岩地帶를 흘러 地下空洞의 崩壞와 侵蝕이 활발했기 때문인 것이다.

③ 奇岩·絶壁

奇岩·絶壁은 河蝕과 海蝕등에 의해 주로 形成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는 地質構造와 地盤運動의 정도에 따른다.

圖·4 에서와 같이 奇岩·絶壁은 河谷·瀑布와 같이 南北으로의 分布가 현저한데 山岳圈(42.9%), 西歸浦圈(19.0%), 大靜圈(19.0%), 城山圈(9.5%)順으로 分布한다.(表·1 參照)

山岳圈에 이와같이 集中된 것은 釜岳을 중심으로 하여 西山麓은 九九谷의 奇岩, 釜岳의 西北壁, 어리목谷의 병풍바위, 釜岳北쪽의 三角峰, 靈室溪谷의 五百羅漢등의 주변일대가 알카리粗面岩質構造를 이루는데다가 火山裂谷으로 河蝕과 風化를 장기간 받았기 때문이다. 釜岳의 西邊海拔高度 1,750 m까지는 玄武岩地帶를 이루고 있으나 그로부터 漢拏山의 頂上인 釜岳까지의 廣範圍한 地帶가 粗面岩質熔岩으로 덮여 이에 발달한 構造谷을 연하여 急崖와 奇岩을 형성하고 있으나 釜岳의 東山麓은 玄武岩으로 구성되어 이 岩石이 기계적風化와 매스무브먼트에 의해 岩海를 이루어 奇岩·絶壁은 발달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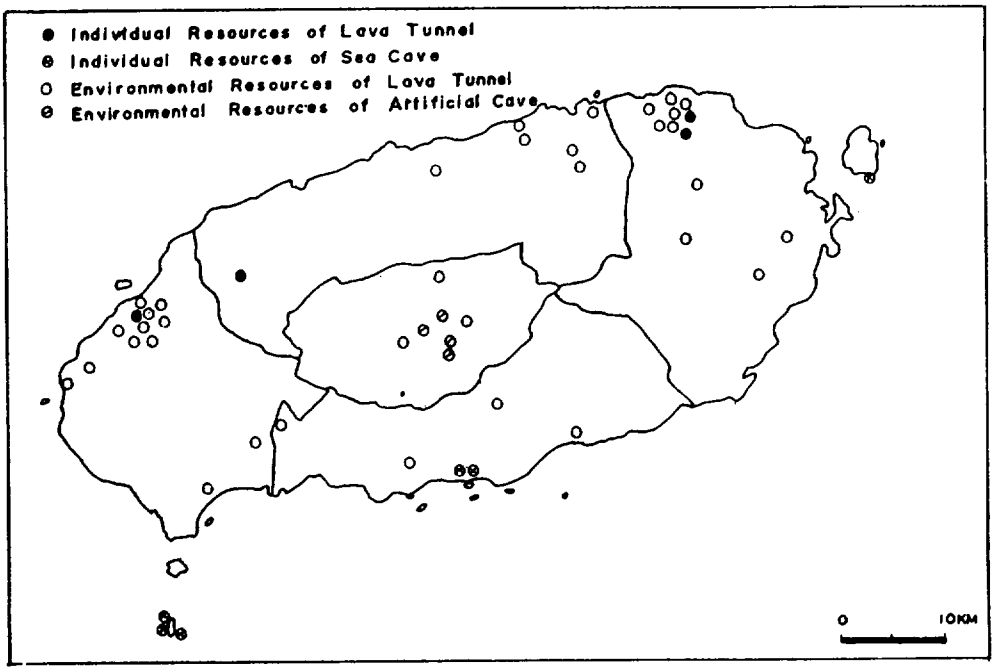
圖·4 奇岩·絶壁 分布

山南의 西歸浦圈 역시 奇岩·絶壁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 이 地帶는 山岳圈과 같이 粗面岩質分布가 현저한데다가 地盤運動에 의해 약 200 m 상승하여[19] 位置에너지의 增大에 의한 浸蝕進展, 슬럼프등의 매스무부먼트에 의한 海蝕崖, 海蝕台, 石島의 形成에 유리하였던 때문이다. 孝敎川中流의 佛像岩, 裸女岩 등의 일부는 地表가 崩落된 후의 河谷低에서 差別浸蝕을 받은 결과이다.

이와같이 海岸圈의 奇岩·絶壁은 河中石島, 河谷急斜面의 일부를 除外하고는 모두 海蝕에 의한 石島 (Seastack) 이거나 海蝕崖 (Seacliff) 에 해당한다.

④ 洞 窟

洞窟은 海底景觀과 함께 독특한 地底觀光物로서 機能을 發揮하고 있는데 自然洞窟로는 石灰洞 (limeston cave), 熔岩窟 (Lava cave), 海蝕洞 (Sea cave) 등이 있는데 本島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熔岩窟과 海蝕洞뿐이다. 人工窟로 소위 「괘」라 하여 山岳圈에 일부 分布하고 있으나 觀光資源으로서 價値는 현재로서 낮다.



圖·5 洞窟分布

19) 元鍾寬, 濟州島의 形成過程과 火山活動에 관한 硏究, p.39.

漢拏山 火山體는 釜岳부근에서 Tholoide型火山을 이루나 나머지 山麓部는 洪積世以後에 溢出式噴火로 流動性이 큰 熔岩의 흐름이 있어 Aspite型火山을 形成하여 곳곳에 많은 熔岩窟을 만들어 놓고 있다.[20]

洞窟의 變動係數는 93.1로 8個의 資源部門중에 가장 큰 값을 나타내어 그 分布가 극미하고 偏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圖·5에서 보는바와 같이 個體的 資源으로서의 洞窟만을 보았을때 城山圈과 大靜圈에만 分布하고 있으나 모든 洞窟을 망라하면 全圈域에 分布하고 있다. 그러나 海蝕洞은 山南의 海岸에 偏在分布를 하고 있고 熔岩窟은 山岳圈의 3個를 비롯해 대체로 山北에 集中된 現象을 보이는데 특히 釜岳을 頂點으로 하여 보았을때 그 北西部와 北東部에 集中되어 있다.

이러한 分布原因은 漢拏山의 南北縱斷을 보면 그 傾斜度가 東西橫斷傾斜에 비해 크기 때문에 新生代四紀의 洪積世이래 噴出한 熔岩의 流動時間이 東西山麓이 길어 洞窟形成에 유리했기 때문인데 그중에서도 釜岳의 北西方向과 北東方向이 最長距離를 보여 大靜圈의 北部와 城山圈의 北部에 規模가 큼은 勿論 多數의 洞窟이 分布 量的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城山圈과 大靜圈의 北部는 本島에 있어서 兩大洞窟觀光地가 되고 있는바 城山圈의 金寧里를 中心으로 하는 地帶는 이미 18세기부터 遊覽名所[21]로 알려진 世界最長(13,422 m) 의 시스템窟인 萬丈窟, 蛇窟등을 비롯한 다수의 洞窟이 群集해 있으며 大靜圈의 北部 挾才里를 중심으로는 東國輿地勝覽에 財岩이라하여 또한 일찍부터 알려진 挾才窟, 双龍窟 그리고 圈域上 濟州圈에 속하나 狹才洞窟地帶에 인접한 單一窟로서 세계最長(11,749 m)인 빌레못窟[22]등이 모여있어 本島 最大의 洞窟地帶를 이루고 있다.

이들 兩大洞窟地帶는 地盤運動時에 勿論 유리한 洞窟形成條件을 갖고 있었지만 그外에 이들이 崩壞되지 않고 잔존할 수 있었던 것은 兩地帶가 共通的으로 貝殼砂로 덮여 그속의 칼슘성분이 雨水에 녹아 炭酸鹽化作用을 받아 玄武岩의 節理나 空隙을 메꾸어 하나의 岩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한편 山南海岸의 西歸浦에는 正房窟, 小正房窟이, 大靜圈에는 山房窟, 장시덕窟, 남대문窟, 소남대문窟 그리고 城山圈에는 고래窟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海蝕洞이다.

海蝕洞이 이와같이 南岸에 집중 分布한 원인은 前述한 바와같이 山南이 地盤運動으로 因하여 隆起했기 때문에 差別的인 海蝕이 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특히 大靜圈의 馬羅島의 海蝕洞은 그 觀光性이 대단히 높은 資源이 되고 있다.

20) 洪始煥, 한국의 自然洞窟, 서울, 금화출판사, 1979, p.145.
21) 李衡祥, 耽羅巡歷圖·南宦博物(170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影印版, 1979.
22) 濟州新聞, "빌렛못굴 全長 11.7 ㎞로 判明", 濟州新聞, 1981, 7, 10, 1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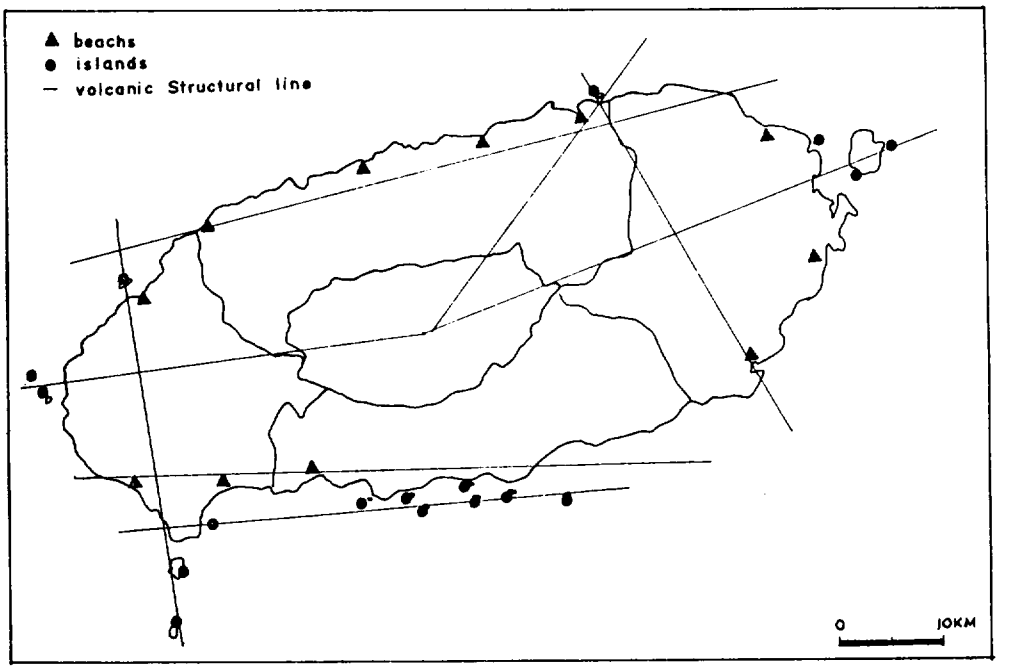
⑤ 砂濱과 섬 (島)

海岸은 構成物質에 따라 岩石海岸과 비이치로 나눌 수 있는데 前者는 그 構成內容이 주로 岩體로 되어있고 주로 侵蝕地形이 나타나 觀光地理的인 면에서는 주로 遊覽觀光의 對象이 되나 後者는 波浪과 沿岸流가 모래나 자갈을 쌓아올린 海岸堆積地形으로 주로 慰樂觀光의 對象이 된다.

砂濱의 分布特徵은 그 變動係數가 52.0으로 8個資源部門중에서는 비교적 散在分布를 보인다. 圖·6에서 보는바와같이 本島 253 ㎞의 海岸線을 따라 岩石海岸이 대부분이 되고있는 西歸浦圈의 海岸을 除外하고서는 대체로 10～15 ㎞의 간격을 두면서 砂濱이 分布하고 있다.

砂濱形成의 地形的 要因을 보면 그 어느것이나 小規模의 灣內가 되고 있으며 특히 西歸浦圈은 隆起海岸으로 海蝕崖나 海蝕臺, 石島등이 發達해 있는데 이것은 쿠로시오(黑潮)海流가 正面으로 와닿는 中央部에 해당되어 砂濱形成에 불리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外의 海岸에는 粗面岩質岩石이 分布하고 있거나 貝砂供給이 원활한 灣인 경우에는 多少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디든지 砂濱이 形成되어 있다.

砂濱의 色狀景觀에 있어서 本島 最大의 挾才, 咸德, 곽지, 細花, 表善등은 粗面岩質의 風化物도 殘積되어 있지만 貝殼에 의한것이 현저해 白砂내지는 灰白色의 砂濱을 이루나 三陽, 和順,



圖·6 砂濱·섬(島) 資源의 分布

大靜, 城山등은 火山砂岩層의 風化物로 構成되어 暗色의 砂濱을 이룬다.[23] 일반적으로 이러한 暗色의 砂濱은 圖·6에서와 같이 火山構造線의 말단부에 섬(火山島)이 형성되는 경우에 뚜렷한데 城山圈의 東端과 大靜圈 南西端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本島의 附屬島嶼로는 有無人島 모두 합해서 49個島이나 그중에 觀光資源化가 된것은14個島이다.

섬(島)資源의 變動係數는 72.5로 비교적 偏在되어 있으며 西歸浦圈에 전체의 35.7%가 分布 최대보유권이 되며 다음이 城山圈과 大靜圈으로 濟州圈이 가장 낮은 分布構成比를 보인다.

이와같이 섬(島)의 分布가 偏在性을 보이는 것은 섬(島)의 分布와 火山構造線이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圖·6에서처럼 西歸浦圈에 해당하는 南端은 森島火山構造線이 海岸과 나란히 東西로 달리면서 地歸島, 森島, 虎島, 兄弟島등을 만들었고 飛揚島와 馬羅島, 加波島는 飛揚島一馬羅島火山構造線에 의했고, 本島의 東西端의 차귀島, 牛島등의 大小의 섬들은 中央火山構造線에 따라 발달한 섬들인 것이다.

따라서 濟州圈은 構造線이 內陸쪽에서 海岸線을 따라 東西로 지나고 있기 때문에 섬의 形成에 불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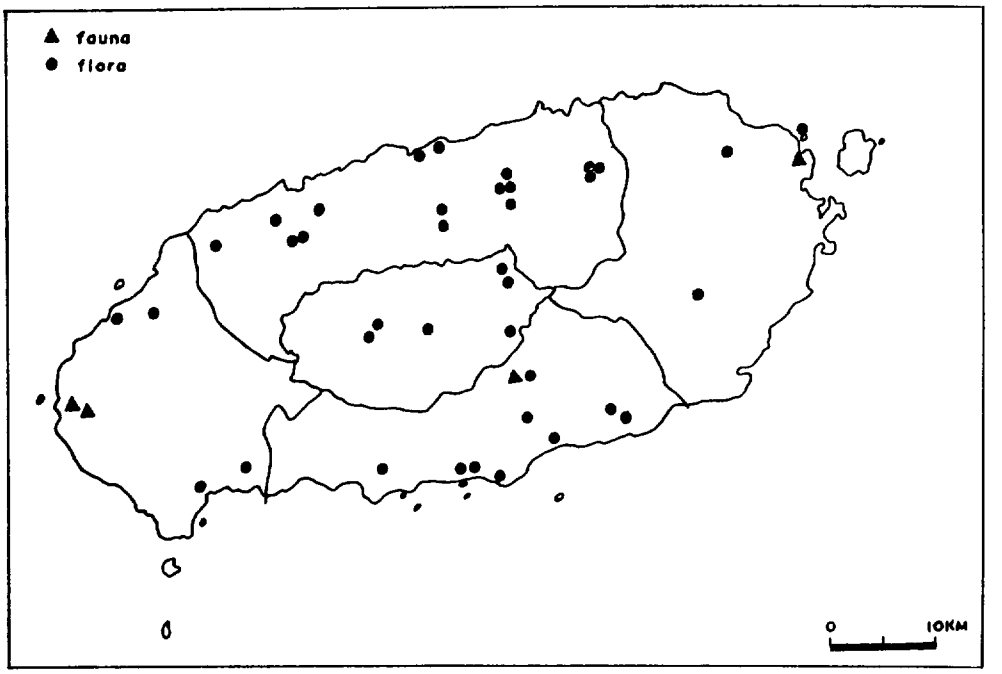
⑥ 動植物

本島에 있어서 生物을 對象으로 하는 人工的 施設 즉, 動植物園과 水族館 등이 전무하지만 動植物의 種類만해도 무려 1,700여종[24]에 이른다. 그러나 個體的 資源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철새到來地와 釣場 그리고 植物의 自然群落地 혹은 棲息處를 個體로 資源化하였다.

먼저 動物資源의 變動係數는 81.7로 매우 偏在性을 가진다.

釣場은 海水魚를 대상으로 하는 바다釣場과 淡水魚를 대상으로 하는 민물釣場이 있지만 內水面發達에 극히 불리한 本島의 自然條件때문에 이의 分布數는 극미하여 濟州圈의 下加里의 蓮花池 한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바다釣場은 本島 全海岸이 釣場이 될 정도로 多數가 分布한다. 釣場의 分布狀態를 보면 濟州圈의 海岸을 除外하고서는 海岸線의 支節率이 크고 島嶼水邊에 集中分布를 보인다. 즉, 西歸浦圈의 玟島를 중심으로 하는 水域은 粗面岩質安山岩이 그리고 城山圈의 牛島, 大靜圈의 加波島와 遮歸島의 주변水域은 火山砂岩層이 隆起한 곳으로 魚類의 棲息에 적합한 海底地形을 이루고 있는 위에 海岸線의 드나듦이 복잡하여 곶(岬)이나 灣 그리고 섬이 발달한 경우는 海流와 潮流에 의해 海水가 渦流 내지는 湧昇流가 되어 釣場形成에 유리하며[25] 또한 濟州圈에서와 같이 그러한 條件이 없다하더라도 魚類의 食餌供給에 유리한 內陸背後地에 긴

23) 姜相培, "濟州道地形에 對한 小考", 濟州教大論文集 濟1輯, 1970, pp.33~34.
24) 濟州道, 濟州道志, pp.547~566.
25) 夫昌玉, "갯바위낚시의 實際", 서울, 낚시春秋, 낚시春秋社, 1978, 4月號, p.113.



圖·7 動·植物 資源의 分布

河川들이 발달하여 있을때도 同一하다.

그러나 濟州圈의 新興里와 咸德里사이, 西歸圈의 南元里에서 城山圈의 古城里 사이에서 처럼 海底가 모래로 주로 구성되어 起伏이 단조롭거나 大靜圈의 모슬포와 高山里사이에서와 같이 海岸線이 단조로우면 釣場形成에 불리하게 되고 있다.

釣場과 달리 動物資源으로서 철새到來地는 季節的으로 顯著하는데, 여름철새는 食餌가 주로 昆虫類가 되어 海拔高度 500 ~ 800 m의 草原地帶와 森林地帶間이 到來地가 되어 個體資源으로 存在意味가 약한 반면에 魚類를 食餌의 對象으로 하는 겨울철새到來地는 그 食餌관계로 한정된 地點이 到來地가 되는데 이러한 食餌로의 魚類는 水面과 關聯이 있는바 本島는 山岳圈에 大小의 火口湖와 臨海圈의 灌漑用貯水池(大靜圈의 龍水里)와 人工養魚場(城山圈의 細花里)이 있다. 그러나 山岳圈의 火口湖는 冬季結氷, 심한 水位의 계절적인 差 등으로 철새到來地로는 부적하고 다만 龍水里 貯水池와 細花里의 창흥洞養魚場, 古城里養魚場만 冬季철새到來地[26]로서 資源化된 것이다.

26) 朴行信, 金源澤, "城山浦養魚場內의 冬季鳥類調査", 濟大海洋資源研究調査報告誌 第5號, 1981, pp.55~66.

두번째로 植物資源은 圖·7에서와 같이 島全體로 보아 「T」字形의 分布를 보이고 있는데 즉 南西部와 南東部가 빈약한 分布狀態이다.

이러한 植物資源의 分布는 山岳圈과 西歸浦圈은 自然的 因子에 의해, 山北의 東西方向의 分布는 人文的 因子에 의하다. 즉, 山岳圈은 海拔高度 600 m이상으로 氣候와 地形的인 制約이 오랫동안 人間의 侵入을 막아 自然植生狀態가 양호하였고 西歸浦圈은 수백미터의 깊이를 갖는「U」字谷이 곳곳에 발달하여 開拓의 不能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기간의 火入農業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火入時의 氣壓差로 因해 植物生態系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까닭이다. 이에 반하여 山北은 河谷이 多數分布하다 하더라도 深谷의 발달을 가져오지 못했고 그위에 開拓이 持續的이였기때문에 植物資源의 保存狀態가 여의치 못했다. 그러나 耐火性이 큰 植物이 濕地에 있었을 경우는 城山圈의 椰子林, 濟州圈의 남음暖帶林, 朝天동백동산과 같이 잘 保存되어 資源化된 경우도 있고 이외에 亭子나무, 防風나무, 토템信仰樹로 보호된 것도 多數 包含된다.

2. 文化的 觀光資源

文化的 觀光資源으로서 文化物은 變動係數가 92.7로 8個資源部門중에 洞窟 다음 두번째로 높아 상당히 地域間에 偏在分布를 하고 있다.(表·1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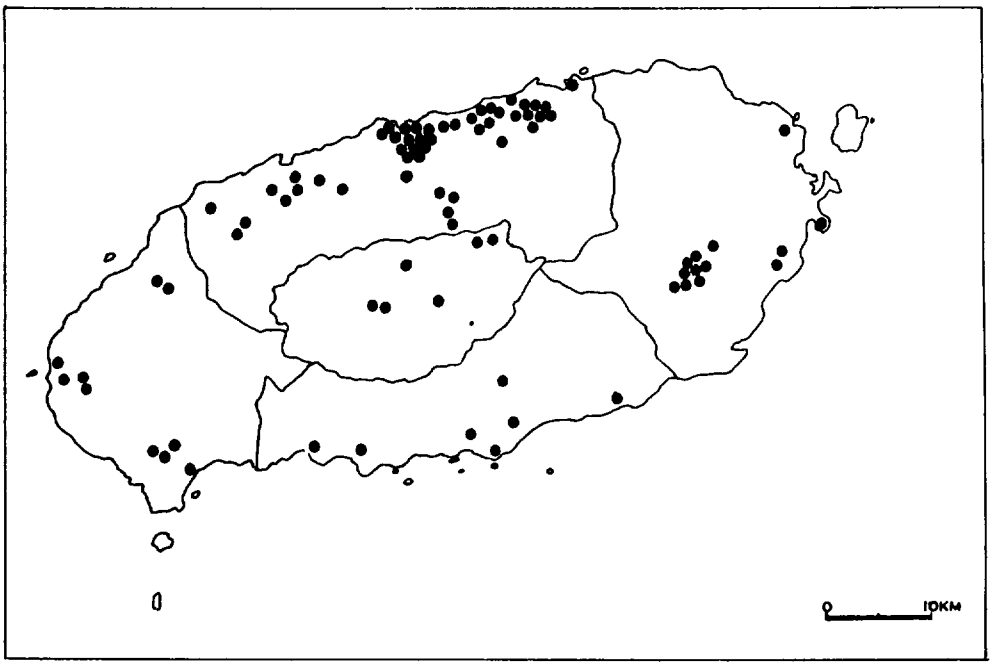
文化物은 非居住地域인 山岳圈을 除外하고 臨海4圈의 모든 곳에 分布하고는 있으나 圖·8에서 보는 바와같이 一見에 山北의 濟州圈이 그 集中度가 높음을 알 수 있다.

文化物의 分布를 圈域別로 보면(表·1參照) 濟州圈(56.6 %), 大靜圈(12.0 %), 城山圈(15.7 %), 西歸浦圈(8.4 %) 順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分布差를 보이는 원인은 文化物은 自然의 所產物이라기보다 人間에 의해 被造된 것으로 人間居住의 時間的, 空間的 다름에서 오는 것이다. 濟州圈은 本島에서도 가장 먼저 형성된 地先民의 生活舞臺가 된 곳일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本島의 中心聚落이 되고 있어 각종 文化財, 民俗資料, 記念物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圈域이 된다. 즉, 濟州市를 中心으로 東으로는 朝天面 北村里까지 西로는 翰林邑 大林里의 이 사이는 海岸平野地帶上에 다종 다양한 上古時代의 文化物이 分布하고 있는데, 濟州市의 龍潭洞, 吾羅洞, 三陽洞, 涯月邑의 光令里, 下貴里등의 支石墓와 또한 涯月邑 郭支里의 貝塚, 翰林邑의 大林里 立石, 濟州市 三姓穴竪穴住居址, 涯月邑 於音里의 빌레못橫穴住居址등은 주요한 文化的 資源들인 것이다.[27]

이러한 文化物分布의 特徵은 이 地帶가 韓半島와 접근성이 높아 流入民의 入島居住에 유리하였고 또한 大小의 自然洞窟이 散在되어 있어 生活舞臺로서 어려움없이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定着農耕時代에 들어오면서 文化物의 形成은 濟州市를 中心하여 이루어져 갔다. 이것은 人

27) 鄭永和, "濟州研究의 現況과 展望", 耽羅文化, 濟州,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84, p.15.



圖·8 文化物의 分布

口增加에 따른 充分한 飮料水의 확보가 문제되었는바 濟州市 주변은 水量과 水質에서 良好한 가락泉, 山地泉, 금산泉, 선반泉, 한데기泉, 다끄네泉, 어영泉등이 있어[28] 聚落形成에 유리한 立地條件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濟州大處에 群居하던 地先民은 점차 人口가 增加함에 따라 현재의 濟州市를 중심으로 하여東西의 海岸地帶를 연하여 空間的 擴散을 하면서 그들의 足跡을 남겼는데[29] 圖·8에서 보는바와 같이 城山圈의 城邑里와 大靜圈의 保城里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居住地의 擴散은 近世에 이르러 島內의 自然的 人口增加外에 島外에서의 政治 社會的 원인에 의한 社會的 人口增加에도 크게 힘입어 나타났다.

또한 人口增加는 勿論이지만 연속된 倭寇의 侵入은 防禦問題가 대두되어 行政機構의 地方新設이 불가피하였다. 더구나 濟州邑城과 邊境地帶間의 連絡遲延, 官吏의 遍察로 그 被害가 커서 1417年(太宗 16年)에 山東南部에 旌義縣이, 山南西部에는 大靜縣이 각각 설치되어 地域中心地가 되었고 그로 인한 文化物이 점차 生成保存이 이루어져 갔다.

28) 農林部, 濟州道水文調査報告書, 農林部, 1968, pp.76 ~ 89.
29) 吳洪哲, 濟州島의 聚落에 관한 地理學的 硏究, 서울, 創音印刷公社, 1974, p.30.

그러나 山南의 西歸浦圈은 오랫동안 그후에도 邊境으로 남아 있을수밖에 없었으며 고려末 元에서 건립한 거대한 寺刹인 法華寺址外에는 極히 빈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Ⅲ. 地域別 觀光性

1. 濟 州 圈

本圈은 濟州島의 行政·經濟·文化는 勿論 觀光中樞圈으로 中央部에 濟州市와 東部의 朝天面, 西部의 涯月邑등 3個의 行政單位로 구성되며 圈域의 面積은 460 ㎢, 人口는 22.0만(人口密度: 474 人)으로 5 個圈域中 最大의 面積과 人口를 갖는다.

圈內에는 8 個部門에 걸친 全資源이 分布하고 있으며 島內에 分布하는 資源의 31.4 %가 集中 最大資源保有圈이 되고 있다.(表·1 參照)

절대적인 資源分布構成을 보면 文化物이 40.0 %로서 最多分布를 보이고 있고 다음에 動植物資源이 19.5 %로 兩資源이 전체의 59.5 %를 차지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다. 全島의 各圈과 比較하여보더라도 表·2 에서와 같이 立地係數가 각 1.80 과 1.21 를 보여 特化度가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文化物의 特化度가 높은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本圈의 濟州島에서 가장 먼저 住民이 개척 정착한 地帶로 그 歷史性때문에 遺物·遺跡등 각종 文化財를 풍부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이로인한 마을주변의 喬子木, 토템信仰樹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動植物部門의 植物資源分布가 현저하다.

文化物이 47 點, 自然物이 35 點 分布하여 偏倚係數(DQ)가 0.74 로 資源分布 構造로 本圈은 文化觀光地가 된다.(表·3 參照)

한편 濟州圈은 모두 4 個의 觀光地區로 構成되어 있는데 海拔高度 100 m 이하의 海岸을 따라서 形成된 3 個의 海岸觀光地와 그 以上의 中山間의 內陸觀光地區 1 個地區이다. 3 個의 海岸觀光地區는 다시 行政境界에 의해 濟州地區, 咸德地區, 納邑地區로 나뉘지며, 中山間의 田園地區는 山泉壇地區가 된다.(圖·9 參照)

4 個의 觀光地區중에 偏倚係數(DQ) 1.0 이상을 보이는 地區는 山泉壇地區와 納邑地區로 각 1.25 와 1.5 를 나타내어 自然觀光地가 되고 있다. 또한 이 두地區는 動植物資源과 文化物이 절대다수를 점하며 遊覽型觀光地區가 되고 있는바 山泉壇地區는 動植物 및 文化物만 分布하여 그 立地係數가 動植物은 3.45, 文化物은 1.39 이며, 納邑地區는 奇岩·絕壁과 섬(島)을 除外한 모든 資源이 分布하고 있으나 특히 動植物과 文化物은 그 立地係數가 각 1.55 와 1.26 으로 特化度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構成比를 보면 動植物은 25.0 %, 文化物은 40.0 %로 이 兩地區는

表·2 圈域別·地區別 觀光資源 立地係數(LQ)*

圈域別 / 地區別 / 資源別	濟州圈					西歸浦圈					
	제주지구	산천단지구	함덕지구	남읍지구		서귀포지구	중문지구	돈네코지구	수악지구	남원지구	
山峰	0.21	-	-	0.36	0.18	0.34	0.91	1.45	-	-	0.51
河谷·瀑布	0.28	-	1.07	1.45	0.71	1.38	2.76	1.93	1.61	-	1.57
奇岩·絶壁	0.71	-	-	-	0.30	1.76	-	2.48	-	-	1.16
洞窟	-	-	-	1.00	0.24	1.91	-	-	-	-	0.93
砂濱	0.89	-	1.16	1.04	0.89	1.49	2.98	-	-	-	1.21
섬(島)	-	-	1.04	-	0.23	3.55	-	-	-	4.66	2.17
動植物	0.53	3.45	1.04	1.55	1.21	0.89	0.89	-	4.14	3.11	1.45
文化物	2.25	1.39	1.75	1.26	1.80	0.3	0.9	1.26	-	0.79	0.51

※ 1) $L\cdot Q$; $\frac{\text{특정지역특정자원}}{\text{특정자원}} \times \frac{\text{전도총자원수}}{\text{지역총자원수}}$

2) LQ의 算出은 圈域別과 地區別로 분리해서 行한후 表에 同時에 나타낸 것임.

表·3 圈域 및 地區別 觀光資源 偏倚係數(D.Q)

圈域別 / 地區別 / 資源別	濟州圈					西歸浦圈					
	제주지구	산천단지구	함덕지구	남읍지구		서귀포지구	중문지구	돈네코지구	수악지구	남원지구	
文化物	25	4	10	8	47	2	2	2	-	1	7
自然物	10	5	8	12	35	19	6	3	6	3	36
D·Q	0.4	1.25	0.8	1.5	0.74	9.5	3	1.5	6.0	3.0	5.14

D·Q ; n/c (n ; 自然物數, c ; 文化物數)

현재 自然觀光地가 되고 있지만 장래 文化觀光地化가 될 可能性이 많은 地區가 되고 있다.

다음 濟州地區와 咸德地區는 偏倚係數(DQ)가 각 0.4와 0.8로 文化觀光地가 되며 특히 이 중의 濟州地區는 地區內 전자원의 71.4%가 文化物로 구성되어 島內 21個觀光地區중 가장 대표적인 文化觀光地區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咸德地區 역시 地區內 전자원의 55.5%가 文化物로 이루어져 있어 文化觀光地가 되며 특히 地區內 全資源이 立地係數 1.0이상을 보여 觀光吸引力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이런 관계로 인하여 濟州地區와 咸德地區는 공히 遊覽型觀光地가 된다.

2. 西歸浦圈

濟州島의 사실상의 觀光中心地인 西歸浦圈은 行政上 西歸浦市와 南元邑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城山圈					大靜圈				山岳圈					
산굼부리지구	일출봉지구	만장굴지구	성읍지구		협재지구	차귀도지구	산방산지구		백록담지구	구구곡지구	영실지구	볼레오름지구	물장올지구	
6.59	0.38	-	0.60	1.98	-	0.72	1.21	0.81	3.11	-	1.79	5.79	2.39	2.16
-	-	-	0.80	0.22	-	-	0.40	0.21	2.76	4.14	2.41	-	-	2.47
-	1.30	-	-	0.56	1.13	2.48	0.52	1.10	1.77	5.33	-	2.48	-	2.38
-	1.06	20.1	-	1.37	7.3	-	2.51	3.12	-	-	-	-	-	-
-	3.3	-	-	1.42	0.95	-	2.61	1.62	-	-	-	-	-	-
-	2.94	-	-	1.27	1.69	1.86	2.33	2.07	-	-	-	-	-	-
0.56	0.65	-	0.52	0.56	1.13	1.24	0.52	0.83	0.44	0.44	1.55	-	2.07	0.79
-	0.66	-	2.36	0.93	0.57	1.26	0.52	0.7	0.22	0.22	0.79	-	1.05	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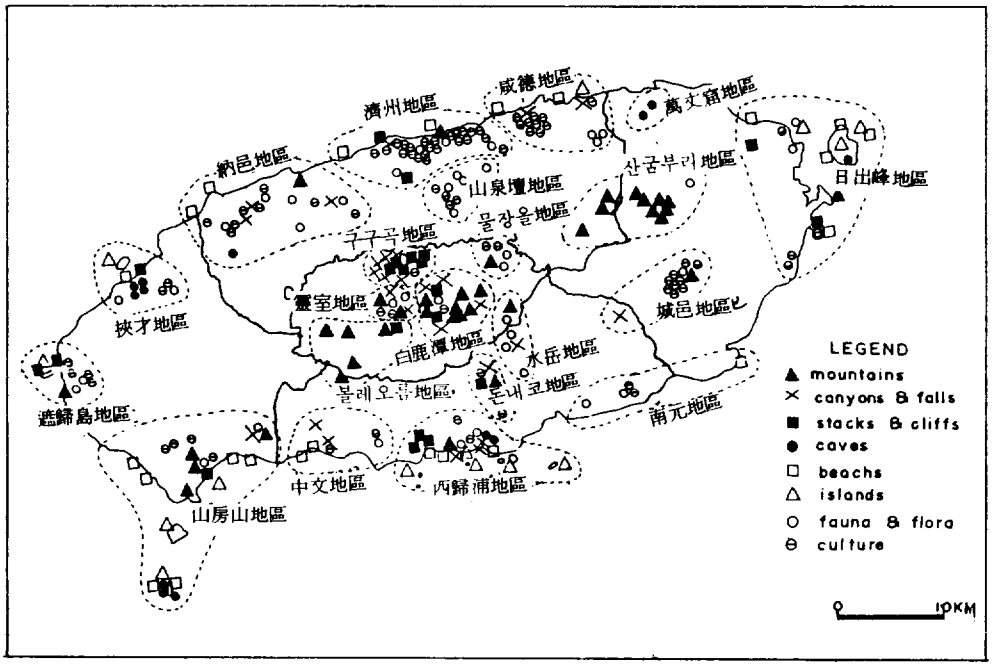
城山圈					大靜圈				山岳圈						계	
산굼부리지구	일출봉지구	만장굴지구	성읍지구		협재지구	차귀도지구	산방산지구		백록담지구	구구곡지구	영실지구	볼레오름지구	물장올지구			
-	4	-	9	13	2	4	4	10	1	1	2	-	2	6	83	
11	15	2	3	31	9	6	20	35	13	13	6	5	4	41	178	
11.0	3.75	2.0	0.3	2.38	4.5	1.5	5.0	3.5	13.0	13.0	3.0	5.0	2.0	6.8	2.14	

總面積은 337 ㎢이며 人口 10.0萬(人口密度 297人)이다.

本圈에는 全島資源의 16.5%에 지나지 않는 資源을 保有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특정자원에 치우치지않고 전부문에 걸쳐 다양하게 分布하는 것이 特徵이다. 또한 偏倚係數 5.14로 人間居住圈중에서는 최대의 自然資源集中圈이 되어 自然觀光地의 特性을 가장 强하게 지니고 있다는 것도 本圈의 特記할만한 사항이다.

自然資源중에서 중요 부문의 立地係數를 보면 섬(島) 2.17, 河谷·瀑布 1.57, 動植物 1.45, 砂濱 1.21, 奇岩·絕壁 1.16으로 모두 特化의 程度가 높은데 대해 文化物은 立地係數 0.51로 人間居住圈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西歸浦圈의 資源分布構造는 本圈이 간헐적인 隆起와 侵蝕 그리고 氣候 및 地質構造上 他圈域과 다른 特性을 갖기때문에 自然資源이 우세한 것이며 또한 오랫동안 漢拏山의 地形的 장애로 濟州大處와 격리 奧地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開拓이 뒤늦어 遺物·遺跡의 文化物 形成에



圖·9 地域別 觀光資源 構成

不利하여 文化財등이 極히 빈약한 分布를 하게된 것이다.

西歸浦圈에는 5個의 觀光地區가 있는데 海岸觀光地로는 西歸浦地區, 中文地區, 南元地區가, 內陸地區로는 돈내코地區와 水岳地區가 있다.(圖·9 參照)

西歸浦地區는 西歸浦圈의 觀光中心基地로 文化物은 단지 전자원의 9.5%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90.5%가 自然部門의 資源이 分布한다.

自然資源中에 山峰과 動植物만이 立地係數 1.0이하이나 이를 除外해서는 섬(島) 3.35, 洞窟 1.91, 奇岩·絶壁 1.76, 砂濱 1.49, 河谷·瀑布 1.38로서 다수의 資源은 特化度가 높다.

여기서 섬(島)은 立地係數 1.0이상인 위에 地區內 全資源의 19.0%이기 때문에 本 地區는 遊覽型觀光地區가 된다.(表·2와 4 參照)

한편 偏倚係數 3.0으로 自然觀光地인 西歸浦地區 西側의 中文地區는 自然資源에서 특히 河谷·瀑布와 砂濱의 立地係數가 각 2.76, 2.98로 이 兩部門은 島內의 모든 地區들중에서도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立地係數 1.0이상으로 最多構成比를 차지하는 부문은 砂濱으로 本 地區는 慰樂型觀光地區가 되고 있다.

西歸浦地區 東側에는 南元地區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地區 역시 偏倚係數 3.0으로 自然觀光

表·4 圈域別 地區別 觀光資源 構成比 (%)

圈域別 / 地區別 / 資源別	濟州圈				西歸浦圈						
	제주지구	산천단지구	함덕지구	남읍지구		서귀포지구	중문지구	돈네코지구	수악지구	남원지구	
山峰	2.8	0.0	0.0	5.0	2.4	4.7	12.5	20.0	0.0	0.0	6.9
河谷·瀑布	2.8	0.0	11.1	15.0	7.3	14.2	25.0	20.0	20.0	0.0	16.2
奇岩·絕壁	5.7	0.0	0.0	0.0	2.4	14.2	0.0	20.0	0.0	0.0	9.3
洞窟	0.0	0.0	0.0	5.0	1.2	9.5	0.0	2.0	0.0	0.0	4.6
砂濱	8.5	0.0	11.1	10.0	8.5	14.2	25.0	0.0	0.0	0.0	11.6
섬 (島)	0.0	0.0	5.5	0.0	1.2	19.0	0.0	0.0	0.0	25.0	11.6
動植物	8.5	55.5	16.6	25.0	19.5	14.2	12.5	0.0	80.0	50.0	23.2
文化物	71.4	45.5	55.5	40.0	57.3	9.5	25.0	40.0	0.0	25.0	16.2

걸쳐 資源이 分布하나 立地係數 1.0 이상인 것은 砂濱 : 섬 (島), 奇岩·絕壁, 洞窟 등 4個部門인데 특히 日出峰地區는 砂濱이 전자원의 31.5%를 차지 最多構成比를 보이기 때문에 本島의 대표적인 海岸慰樂觀光地가 되나 아직은 開發의 미비로 日出峰의 火山이 상징적인 資源으로 활용도가 높다.

한편 城山圈 南部內陸의 城邑地區는 4個部門에 해당하는 資源이 分布하고 있으나 立地係數 1.0이상인 資源은 2.36을 갖는 文化物에 한하고 있으며 그결과 偏倚係數가 0.3으로 濟州圈의 濟州地區의 偏倚係數 0.4보다 더 낮아 島內의 全觀光地區중 가장 文化觀光地의 特性이 높다하겠다. 文化物이 차지하는 構成比는 75.0%로서 城邑地區는 전형적인 遊覽型觀光地가 되고 있다.

4. 大靜圈

自然地理的인 面에서 城山圈과 많은 類似性을 갖는 大靜圈은 行政上으로 大靜邑, 翰林邑, 翰京面으로 되어 있으며 그 總面積은 344 ㎢, 人口 8.2萬 (人口密度 238人)이다. 本圈에는 島 全資源의 17.2%가 있고 立地係數 1.0이상인 資源이 洞窟, 섬 (島), 砂濱, 奇岩·絕壁등으로 이중에서도 특히 洞窟資源은 本島의 5個觀光圈域中 가장 많은 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熔岩窟도 勿論 多數가 있지만 海蝕洞이 많은 데서 인유한다. 이와같이 大靜圈은 自然資源이 다수 分布하여 偏倚係數가 3.5로 自然觀光地의 特性이 높다.

大靜圈內에는 3個의 觀光地區가 있는데 挾才地區, 遮歸島地區, 山房山地區가 그것으로 모두 海岸觀光地가 되어 內陸觀光地區는 全無한데 이것만이 山東의 城山觀光圈과 다른 점이다.

城山圈					大靜圈				山岳圈					
산굼부리지구	일출봉지구	만장굴지구	성읍지구		협재지구	차귀도지구	산방산지구		백록담지구	구구곡지구	영실지구	볼레오름지구	물장올지구	
90.9	5.2	0.0	8.3	27.2	0.0	10.0	16.6	11.1	42.8	0.0	25.0	80.0	33.3	29.7
0.0	0.0	0.0	8.3	2.2	0.0	0.0	4.1	2.2	28.5	42.8	25.0	0.0	0.0	25.5
0.0	10.5	0.0	0.0	4.5	9.0	20.0	4.1	8.8	14.2	42.8	0.0	0.0	0.0	19.1
0.0	5.2	100.0	0.0	6.8	36.3	0.0	12.5	15.5	0.0	0.0	0.0	0.0	0.0	0.0
0.0	31.5	0.0	0.0	13.6	9.0	0.0	25.0	15.5	0.0	0.0	0.0	0.0	0.0	0.0
0.0	15.7	0.0	0.0	6.8	9.0	10.0	12.5	11.1	0.0	0.0	0.0	0.0	0.0	0.0
0.1	10.5	0.0	8.3	9.0	18.1	20.0	8.2	13.3	7.1	7.1	25.0	0.0	12.7	12.7
0.0	21.0	0.0	75.0	29.5	18.1	40.0	16.6	22.2	7.1	7.1	25.0	0.0	12.7	12.7

挾才地區는 山峰과 河谷·瀑布를 除外해서는 모든 部門의 資源이 分布하며 그중에 중요부문의 資源과 立地係數를 보면 洞窟 7.3, 섬(島) 1.69, 奇岩·絕壁 1.13, 動植物 1.13으로 洞窟의 特化度가 가장 높아 島全體地區中에 萬丈窟地區 다음으로 洞窟觀光性을 높게 갖는 地區이다. 따라서 挾才地區는 砂濱에 의한 觀光레크레이션地로 知名度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遊覽型觀光地가 되며또한 偏倚係數가 4.5로 유수한 自然觀光地로 나타난다.

한편 遮歸島地區는 河谷·瀑布, 洞窟, 砂濱은 分布하지 않고 있으며 그밖의 資源中 奇岩·絕壁은 그 立地係數가 2.48로 特化度가 매우 높다. 最多構成比를 보이는 資源이 動植物과 奇岩·絕壁으로 共히 20.0을 차지 遊覽型觀光地를 만들고 있고 偏倚係數 1.5로 自然觀光地를 이룬다.

大靜圈의 南部에 위치하는 山房山地區는 本圈의 代表的인 觀光地區로 全部門에 걸쳐 資源이 分布하고 있는데 山峰, 洞窟, 砂濱, 섬(島)등이 특출하며 그중에서도 砂濱은 立地係數 2.61로 特化度가 높은데다가 全資源의 25.0%를 차지 本地區로 하여금 慰樂型觀光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洞窟도 그 立地係數가 2.51이 되어 山房山地區의 觀光性은 多樣性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山房地區의 偏倚係數는 5.0으로 自然觀光地임을 보여준다.

5. 山岳圈

5個의 觀光圈域中에 유일한 人間非居住圈인 山岳圈은 海拔高度 600 *m*이상의 漢拏山 山頂部에 해당되는 地帶로 面積은 238 *km²*이며 本島에 分布하는 全資源의 18.0%를 보유하여 濟州圈 다음 多數의 資源을 갖는 圈域이다.

그러나 本圈의 位置가 內陸山岳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砂濱과 섬(島)은 없게되며 地形·

地質관계로 人工窟인 「괘」를 除外하고는 또한 洞窟도 없다. 分布하는 資源中에 山峰, 河谷·瀑布, 奇岩·絕壁은 立地係數 1.0이상으로 높은 特化度를 보인다 하겠으나 原始景觀을 그대로 간직한 山岳圈이 動植物에서 낮은 特化度를 보여주는 것은 環境的 資源의 價値는 높지만 個體的 資源化의 對象은 없다는 뜻이다.

偏倚係數 6.8로 自然觀光地가 되는 山岳圈은 山稜과 火山裂谷에 의해 5個의 觀光地區로 나눌수 있는데 즉 白鹿潭地區, 구구곡地區, 靈室地區, 볼레오름地區, 물장올地區이다.

山岳圈 中央部의 白鹿潭地區는 洞窟, 砂濱, 섬(島)外의 資源들이 分布하며 이중에 山峰, 河谷·瀑布, 奇岩·絕壁은 立地係數 1.0이상을 보이며 특히 山峰은 3.11로 城山圈의 산굼부리地區 다음으로 特化되어 있다. 最多構成比의 資源은 역시 42.8%를 보이는 山峰으로 海拔 600 m이상에 位置하므로 慰樂型觀光地가 된다.

白鹿潭地區 북서쪽의 구구곡地區는 山峰, 洞窟, 砂濱, 섬(島)部門의 資源은 없고 기타 分布하는 資源中에 河谷·瀑布와 奇岩·絕壁은 山岳圈뿐만 아니라 濟州島內의 21個觀光地區中에 가장 많은 分布數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立地係數는 河谷·瀑布 4.14, 奇岩·絕壁 5.33으로 구구곡地區는 遊覽型觀光地區가 된다.

다음에 靈室地區는 山峰, 河谷·瀑布, 動植物, 文化物등 5個部門의 資源만 分布하는데 特記해야될 것은 本 靈室地區에 奇岩·絕壁이 全無한데 이것은 매우 觀光吸引力이 큰 資源으로서의 五百羅漢 등이 環境的 資源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靈室地區는 河谷·瀑布를 중심하여 觀光地를 형성하여 그 立地係數가 2.41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外에 構成比에서도 타자원과 같이 25.0%가 되어 本地區는 遊覽型觀光地를 이루고 있다.

靈室地區 南西部의 볼레오름地區는 山峰과 奇岩·絕壁의 단 두부분만이 分布하는데 특히 山峰은 立地係數가 5.79로 산굼부리地區 다음으로 特化度가 높다. 奇岩·絕壁도 立地係數가 2.48로 비교적 높은 特化를 보여줘 볼레오름地區는 慰樂型觀光地가 되고 있다.

山岳圈의 北東部에 자리하는 물장올地區는 3個部門 즉 山峰, 動植物, 文化物이 分布하는데 그 모두가 立地係數 1.0이상으로 높은 特化를 보여주는데 특기할만한 것은 이 地區의 文化物의 立地係數가 1.05를 보이는 것으로 이것은 觀音寺와 입승정이 包含되었기 때문이다.

물장올地區에서는 山峰의 構成比가 33.3%가 되어 慰樂型觀光地를 形成하고 있다.

Ⅳ. 結　　論

本研究의 目的이 序論에서 밝힌바와 같이 濟州島의 觀光資源分布를 地理的 事實에 의거 解明하고 나아가서 觀光空間構造와 그 特性을 종합적으로 究明할려는 本島의 觀光地에 對한 序說的

研究다.

觀光資源의 分布를 平面的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서 濟州圈－山岳圈－西歸浦圈으로 이어지는 南北縱斷型을 이루어 山東의 城山圈과 山西의 大靜圈은 相對的인 貧弱性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地形 및 生物과 關聯된 資源만을 보면 「ㅗ」字型, 地質과 文化的인 것과 關聯性을 갖는 資源은 그 반대의 「T」字型의 分布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濟州島의 觀光資源을 形成過程에 의해 自然的인 것과 文化的인 것으로 區分할 경우 自然的인 資源은 山中과 山南部에 偏在分布를 하고 있고 文化的 資源은 山北部에 帶狀으로 分布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觀光資源의 垂直的 分布를 보면 海拔 200 *m* 이하의 海岸地帶를 따라서는 全資源의 67 %가 200 ～ 600 *m* 사이의 中山間 內陸에 11 %, 600 *m* 이상 山岳地에 22 %가 分布하여 中山間 內陸에 個體的 資源이 貧弱함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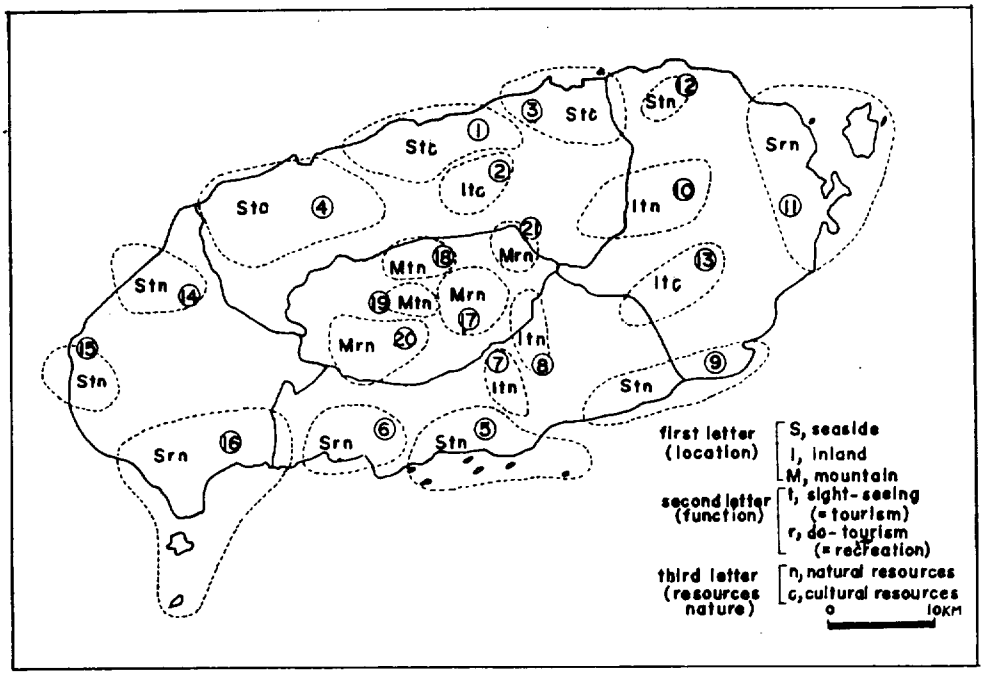
다음에 濟州島의 觀光地區分布와 그 觀光性은 아래의 地圖와 같이 나타나는바 海岸遊覽自然型觀光地區 (Stn)는 ⑤西歸浦地區·⑨南元地區·⑫萬丈窟地區·⑭挾才地區·⑮遮歸島地區이며 海岸遊覽文化型觀光地區 (Stc)는 ①濟州地區·③咸德地區·④納邑地區 그리고 海岸慰樂自然型觀光地區 (Srn)는 ⑥中文地區·⑪日出峰地區·⑯山房山地區가 된다.

한편 內陸遊覽自然型觀光地區 (Itn)는 ⑦돈내코地區·⑧水岳地區·⑩산굼부리地區가 되며 內陸遊覽文化型觀光地區 (Itc)는 ②山泉壇地區·⑬城邑地區등이 있다.

다음에 山岳遊覽自然型觀光地區 (Mtn)에는 ⑱구구곡地區·⑲靈室地區가 들어있고 山岳慰樂自然型觀光地區 (Mrn)는 ⑰白鹿潭地區·⑳불레오름地區·㉑물장올地區등이 되고 있다.

따라서 觀光地位置로서 海岸이 11個地區, 內陸과 山岳이 共히 5個地區씩 되며 觀光地機能上遊覽型이 14個地區, 慰樂型이 7個地區가 된다. 다음에 觀光地形成에서 보아서는 文化地區가 6個地區, 自然地區가 15個地區로 구성된다.

이로 미루어보아 濟州島 全體의 觀光性은 海岸立地의 遊覽型이 되며 觀光地形成은 거의 自然的인 것에 依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tc
Stn
Srn
Sta
Itc
Itn
Mtn
Mrn
Stn
Mtn
Mrn
Itc
Mrn
Itn
Itn
Stn
Stn
Srn
Srn
Stn
first letter (location)
S, seaside
I, inland
M, mountain
second letter (function)
t, sight-seeing (= tourism)
r, do-tourism (= recreation)
third letter (resources nature)
n, natural resources
c, cultural resources
0
10KM

Summary

Regional Characteristic and Distribution Patterns of Tourist Resources in Cheju-Do

Song Sung-dae

The purpose of this studies is that explains distribution of tourist resources of Cheju-Do by Geographical approach and tourism characteristics of agglomeration of tourist resources.

Flat distribution condition of resource make combining longitudinal pattern of north-south into north-south of mountain in Cheju-Do, Sanak-area, Sokwipo-area and thus distribution of resources is feeble in Daejung-area of west-east of mountain, Sungsan-area. Landforms, fauna and flora show 「ㅗㅗ」-letter pattern, cultural resources present 「ㅜㅜ」-letter pattern, then sandstone of south of mountain shows that Earth's surface goes up (upwarped) about 200m by wraping and comes to particular landscape. But sandstone of north is weaker than the ascension of ground, because people's mainhabitat region has become from the prehistoric age up to the present time in Korea peninsular and accessibility.

On the other hand, feature of vertical distribution of resources is most aboundant in seaside plains (below 100m), second is mountainous region (600m and upwards). Third is mid-mountainous region, since seaside is profitable to form cultural resources as people's habitat region, special scene is eminent by wraping and wave erosion, Sanak-area is that relief is extreme, approaching of people is disturbed by restriction of climate and thus have kept as it is. However mid-mountainous region doesn't make environment like thus by transition belt and distribution of resource turns up faint.

According to distribution of tourist resources, tourist district of Cheju-Do involves 21 ones: cultural patterns of inland sight-seeing, cultural patterns of inland sight-seeing, natural patterns of mountainous sight-seeing, natural patterns of mountainous resort.